

開闢 - 1921. 08. 01

東洋道學의 體係如何(下之三)

姜春山

朱子-哲學…理氣=理의 統一=氣의 殊別…自然哲學…天地萬物發生=性, 心, 情
陳北溪-學說…心合理氣=情有善惡=太極의 本體

南宋哲學

羅預章, 李延平의 時에 宋의 社稷은 漸漸夷狄의 鞭을 蒙하야 建炎元年(西紀二二七年) 高宗이 位를 南京에 卽하니 於是에 南宋이라 號하니라.

朱學…朱子(傳并書)

朱晦菴의 名은 熹요. 字는 元晦니 徽州人이라. 父의 名은 松이오. 字는 喬年이니 李延平和 同히 羅預章에게 學하다. 進士에 舉하야 官에 就하엿으나 金國과의 和議를 不贊하고 畢竟宰相秦檜의 旨에 忤하야 建炎四年에 官이 罷하고 友溪城外□秀峯下에 寓하엿다가 其 年九月에 一人의 男子를 生하니 卽晦菴이라. 幼時부터 顯悟하야 羣兒와 異하더니 四歲時에 其 父-天을 指하야 其天됨을 敎하니 忽然間曰「天의 上에 更히 何物이 有하냐」하엿고 十四歲時에 父의 遺命으로 劉致中에게 學하고 二十四歲時에 李延平에게 從學하니라. 高宗時에 夷狄問題에 上書하야 內로 官相을 斥하고 其 和議의 不可함을 論하니 上이 怒하야 誅코저 하다가 宰相趙雄이 諫止하니라. 慶元六月三日에 疾하야 其 所學을 門人에게 屬하고 翌日에 衣冠을 整하고 枕에 就하야 長逝하니 後에 諡하야 文公이라 하고 理宗時에 大師을 贈하고 信國公을 追封하다. 其 著述한바-頗多하야 大學, 中庸의 章句 或問, 太極圖解, 通書解易本義, 啓蒙, 蓍卦攻誤, 論語集註, 孟子集註, 詩集傳, 楚辭集, 韓文考異, 論孟集議, 孟子指要, 中庸輯略, 孝經刊誤, 小學, 謝上蔡語錄, 延平問答, 宋名臣言行錄, 程氏外書, 程氏遺書, 家禮, 近思錄, 通鑑綱目, 伊洛淵源錄, 正蒙解 등이 是-니 平生所作이 凡一百卷, 生徒問答朱子語錄, 朱子語類 등이니라.

그의哲學=理氣

朱子는伊川의思想을繼承하여理氣二字를主張하고又周子の太極으로써理를斷
하얏나니故로曰『只是一個理而已，因其極致，然之以太極』이라하얏다 그리하
야太極과理와는但히見하는點이異할뿐인바萬物의深底에積함으로써見할時는
太極이라云하고理와氣를相對하여見할時는理라云할뿐이라하얏다

朱子-以爲하되宇宙一切의現象은皆是，理氣의合成으로부터成하니라人物의生
함도，반듯이此理를稟賦하여其性을成하고此氣를受得하여其形을成하나니
性과形은必然的으로有한바-니라그러나理와氣와는相離하여存在한事-決無하다
氣가無할時는理도掛搭할바-無하고理가無하면氣도亦是形을成하기不能하나니
故로氣-無한理가無하고理-無한氣가無하니라

更進하여理氣의作俑의區別을論하면理는形以上の道로써萬物을生하는바原理
오氣는形以下の器로써理에게屬率되야鑄形되는質料니氣는即，自身の運動이無
하고必히理를待하여理의指向에由한后이라야於是乎流行함을得할뿐이니라

그럼으로理와氣는時의先後로써論키不可하니라朱子는天地有始說과太極圖說
과를信함으로써『天地未生以前은只是理뿐이라』云하얏도다然이나即時語를
繼하여曰『理가有하면便是天地가有하다』言하얏나니其思想의明裁는稍히闕한
바-有하다하겟으나 大體-理와氣와는時의先後로써論키不可하다는그點에對하
얀稍히明白하도다

大抵理와氣와는時의先後로써論키는不可하나自存의資格으로써其의根本의됨
과否함은論할만하니라若此로써論할時는理는根本의이오氣는附隨的이라謂치
아니치못할지로다故로或人이理와氣와를論함에答하야曰『有此理，便有此氣，但
理是本』이라하니라

然이나理는別個物으로써存함이아니오亦是氣의中에存在할뿐이로다

然한대朱子의有한바理의觀念은西洋近世哲學家의唱導한바實在와現象과如한
者-아니오即理氣의二元이結合하야個個의現象을成한다함이니但理는氣에對하
야自存의資格에서根本이될것뿐이로다

理의統一

理는散하야萬物에在하나然이나可히統一될만한者-니此即萬物의一原된바-니
라萬物의殊別한方面으로부터觀하면理가相同치아니함은事實이다是故로理는
一面已라理를此方面으로써觀할時에朱子는多數의太極圖目을付하얏으니以爲하
되『人人이一太極이有하며物物이一太極이有한바合하야言하면萬物이一太極에
體統되얏으며此를更히分하야言하면一物이各各一太極式을具하얏다』하고兼하
야萬物의太極이原初의太極과無異함을喩하야曰『一粒의粟이生하야苗가되고
苗가更히花를生하고花가更히實을結하고， 그리하야實이熟하면本形에還復하야

一穗百粒이有하되每粒이個個完全하도다又這의百粒을種할時는一粒이又各百粒式을生하야其窮極이無하되此亦本初의一粒으로부터分去된바는否認할수無한事實이다此와同樣으로物物이各各其理가有하나總是一理일것뿐이라』 하엿다果然하면太極은一이오또萬인全知全能의것이되지아님이不可하도다

然하면禽獸草木이如斯히甚大한差別을有한者도亦是一理가不無하도다故曰『外而至於人則人之理不外於己也，遠而至於物則，物之理，亦不異於人也，極其大則天地之運，古今之變，不能外也，盡於小則，一塵之微一息之頃，不能遺也，是乃上帝所降之衷，烝民所秉之彝，劉子所謂天地之中，孔子所謂性與天道，子思所謂天命之性，孟子所謂仁義之心，程子所謂天然自有之中，張子所謂萬物之一原，邵子所謂道之形體』라함이即是로다

故로朱子는共通普遍의理는有하나個特具體的即一物에만限한理는無함과如하도다此朱子哲學의眼目이라하노라

氣의殊別

朱子曰『以理言之則，無不全，以氣言之則，不能無偏』이라하나니理에는差別이無하나氣는種種의別이有하다清爽한者，昏濁한者-有하야一一히枚舉키不能하니此即萬物의差別이有한所以로다然하나一一히太極을有치안은事-無하야其狀이寶珠가水中에在함과恰然하도다聖賢의中에在함은清水中에在함과如하야其清光이自然發揮하며至愚不肖의中에在함은濁水中에在함과如하야泥濘을澄去치안으면其光을見키不能하니라

此-單히同一人類에서만云함이아니오人과物과의差別도亦是氣의差別뿐이다故로曰『得其精英者，爲人得其渣滓者爲物，初不道付全氣與人，減下一等與物也，但稟受其所得，物固昏塞矣而，昏塞之中，亦有輕重이니 此即人物의差異로다

自然哲學

天地萬物發生論?

太極은天地萬物을發生케한바의原理-니太初는混沌無差別의一元氣로써動하얀陽을生하고靜하얀陰을生하며後에水火를生하고又木金土가生하야於是乎二氣五行이具하엿나니라

然한데萬物로써生하고써化하야其精을得한者는오즉人이오其粗를得한者는即物이니精에亦種類가多하고粗에도亦種類가多하야此로써人物의數-勝키不可하니라 二氣五行이生하는바理는預想的으로太極의中에存在하나니太極은陰陽의上에도存在하고又五行의上에도存在하니라此陰陽과五行과太極이化合하야物을

生할새其性이되는者는, 오즉太極뿐이라한다朱子は又氣化의出來를得한다고信하였나니曰『氣化是當生一個人, 無種自生來底, 形生却是有此人, 後生來』라고한바獨히過去에對할뿐만아니라現今이라도二五로부터氣化한다고信하니虱과如함이即是라하니라

天地論

天은氣의輕淸한者-오地는氣의重濁한者-니天이一晝夜에大凡九十餘萬里를行하는바頗히迅速함으로써地는是陰氣와陽氣로써即太極의動靜에由하여作한바니라

萬物論

朱子は宇宙의中間을總是屈伸往來라하였나니其說에曰『天地間, 無兩立之理, 非陰勝陽則, 陽勝陰, 無物不然, 無時不然, 寒暑晝夜, 君子小人, 天理人欲皆然』하는도다然함으로天地의中間에此氣의升降上下함이分하여六層을成하였나니即十一月冬至에下面第一層으로부터生起하여漸次第六層의上에到하였다가極天에至하나니是-四月이되는것이다如是히陽이生하였다가既足하면更히消却하고下氣即陰氣가便生하나니此即這個一氣의升降循環不已로六層의中間에往來한다하니라

鬼神에 關한見解도橫渠篇에露出하였나니曰『草木發生은即神이오凋殘衰落함은即鬼니라人이少에서壯에至함은即神이오衰老는即鬼-며鼻息의呼는即神이오吸은即鬼-며屈伸往來는是-陰陽二氣의自然性이니氣方來는皆陽에屬하고兼하여神이며反함은是-陰에屬하고兼하여鬼-며日午는神으로午后는鬼에屬하나니天地造化-皆是鬼神뿐이라』하니라

然함으로朱子は又宇宙間은總是一氣되는事를基礎로하여人心의感動을信하였나니曰『父祖-皆是一氣라其誠敬을極하면自然感通한다』하야謝上蔡의說에『祖考精神이便是自家精神이라』함을贊同하였나니라

天地萬物論의結論

以上諸說은만듯이朱子の創唱한바-아니라但一方으로는其知識의雜駁을示하고又一方으로는理氣二元을如何한點까지應用함을見할뿐이다朱子は宇宙에陰陽二氣의道를主張하였스나理氣는實로太極을具備하니라故로曰『太極者, 不離陰陽而爲言, 亦不離陰陽而爲言』이라하다然한데氣가聚하여形을成하고散하여形을失하니라太極은或見하며或不見하나니恰然히月影이盆水에映함과如하야盆水を除하면月影을消失하고復하면則見하나니月影은太極과如하고盆水の除復은氣의散聚함과如하니라

性心論

□性 人物이理氣의二로부터成하나니理는即太極으로, 太極은即性이니라人物의同得한바此를本然이라한다

仁義禮智等, 人生의모든關係를圓滿麗滑케하는바總法則이此에具備치안임이無하니此는本然의性으로써氣質性이有함으로다 氣質性이라함은氣의淸濁如何에準하는者임으로써淸한者는聖賢이되며濁한者는昏愚가되나니라詳言하면木氣를多得한者는惻隱의心이常多함과同時에羞惡의心과辭遜是非의心이此에게窒塞되야發함을不得하고金氣를多得한者는羞惡의心이常多함과同時에惻隱, 羞惡, 辭遜의心이此에게窒塞되야發함을不得하고火水도亦然하나니故로氣質의性이完全한人은陰陽의德을合하고五性이全備하니라然則氣質의性은形體가有한後에生하는도다

然하나形質이無하면本然의性도自己를安置云爲할바가無할지로다一勺의水도此를盛할器가無하면畢竟歸着할바가無함과如하나니故로本然의性은實際에在하야는氣質의性과密接하나니此로써氣質의性을論할時는어찌할수업시理와氣를并言치아니치못할지로다

□心 心은一身의主宰로衆理를具하야萬事に應하는바-니此가理氣兩者中何者에속하였는가此는氣에屬치안음을不得하리로다乃曰『心者, 氣之淸爽者』-며又其性에如何한關係를有하였는가?性은心을具하는바로理니라乃曰『性者, 心之所具之理』라하고又曰『心以性爲體』라하엿나니性과心の關係-此点에서明白하나니故로心은理에因하야刺動되며又氣에因하야刺動될만하나니前者는此를道心이라하고後者는此를人心이라한다惻隱羞惡等의心은皆道心이오經驗的事物을動機로하야發한者即嗜慾과如함은是人心이니라乃曰『道心是義理上發出來底, 人心是人身上發出來底, 然之而雖聖人, 不能無人心, 饑食渴飲之類是也, 雖小人不能無道心, 如惻隱羞惡之心是也』-로다

此身體가有한以上, 即經驗世界에人間의生住하는以上은비록聖人이라도, 어찌할수업시嗜慾이無키不能하도다吾人은此에至하야勢-此를『칸도』에比치아니치못할지니『칸도』氏의倫理學에曰『人類는現象, 實在의二方面을有하나니實在의方面으로부터無上의命令이吾人의意志를刺動하고經驗의方面으로부터經驗의動機가吾人의意志를司配하는故로其行이倫理의正路에出치못한다』하엿나니라然함으로『칸도』는完然是性善說을執한者-라其無上命令으로써先天的이라한者는即性은普偏의理라한宋儒의說과酷似하도다

斯와如히心은經驗의動機에由하야司配된者임으로그대로放任할時는忽然히社

會의秩序를紊亂케하며, 팔아서人生의安危를生케하나니, 此-即聖人의敎에人心은惟危라云한바其敎-道心으로써主宰케하고人心으로써其命令에屈케함이라도

□心, 性, 情 朱子의 情에關한見解-頗히可觀할만한者-有하니以爲하되 『情은性이氣를通하여發動하는바-요心은性情을統하는者-라故로性의方面으로見하면心은寂然하여不動하고情의方面으로見하면感하여遂通하는者라』 하며又曰 『心이動치안을時는性이오心이已動할時는即情이니心이性情을統하였다함은此를謂함이라도欲은是情으로부터發生한者라』 하니라

工夫論

格格物窮理

致知格物과窮理와는朱子는畢竟此를同一에歸케하니故로曰 『格物致知, 是窮此理』 라하고更히 格物의 精細한工夫를說하야曰 『致知格物은只是一事니라物을致하는時는即知를致함이니凡人的德이入하는處-全히格物致知에在하다』 하니라朱子情密한讀書를說하야曰 『讀書之法在循序而漸進, 熟讀而精思, 字求其訓, 句索其旨, 未得於前則, 不敢求於後, 未通於此則, 不敢志乎彼, 先須熟讀使其言, 皆若出於吾之口, 繼以精思, 使其意, 若出於吾心』 이라하였스니是-讀書로써窮理의第一이라함은朱子派의唯一眼目이라할지라

夜氣를存함 夜氣라함은私心이暫靜하고良心朦朧의狀이니一晝의間에理會하여得한바를夜에入하야須히涵養할지라日間에一分의道理를進得하야夜氣-便一分을添하고第二日에更히如斯하야日日只管進하고夜間只管進하면氣가益浩然하나라若此에反하야夜氣를日日減耗하면遂禽獸에不遠하나라

靜坐

朱子는又學者에게敎함에靜坐로써하엿나니其說에曰 『靜坐는是坐禪入定과如히思慮를一切斷함이아니오只此心를收斂하야思慮에走케아니할뿐이다然할時는心이湛然無事하야自然히專一할지며其有事에及하야隨事應事하고事를已할時는後湛然할지니라

彼又熱心의要를示하야曰 『心有所用則心存所主, 只看如今纔讀書, 便主於讀書, 纔寫字, 則心便主於寫字, 若是悠悠蕩蕩, 幾有不入於邪僻者也』 -라하니此는凡事에當하야모름직이其心을其事에만傾注하고他事에及치勿하라하는誠意니라

工夫論의 結言

凡人之弊는躁動에在하니라故로工夫의精神은先히此躁動을鎮克함으로써第一이라할지니此点에서靜坐의必要가有하다然한데氣質의昏塞한者는生하여義理를不知하나니格物窮理의用을見하고徒히格物窮理할뿐으로써自家의體認한事-無하면聖賢의道를求하는바가아니로다所謂體認은문득夜氣를存케함이니此意味로써夜氣를存하는바가最不可闕의者-라 以上三段에서朱子が修心工夫의大綱은此를盡함을得하였도다

結論

要컨대朱子が太極卽理와氣와를二元으로立하여써全宇宙의全體를解釋함은中國哲學史上에서最히異彩를放한一組織이라할지니其材料로入來한者는開闢以來의幼, 怪, 眞, 僞의一切現象과一切學術으로써其組織의體를作한바時로或破綻의露가無함은아니로되大體로써보면完全타할지로다其의直接으로宋代의先輩諸氏에게有効타할것은第一伊川에서不明하였든心字를取하여야此에二元의一되는氣에屬케한事-며第二情性의說이頗히精當함을得한事-是-니라故로朱子로써宋代哲學의大成功者-라謂치아니치못하겠도다

朱子의歷史的位置에對하여가장注意할만한바者는卽理氣의觀念에在하니此觀念은明道以來로今日에至하기까지凡三段의變遷이有하였도다 明道는아즉理氣를分別치못하여性은卽氣라解하였고朱子는理氣를잘區別하여理에附함을明道의唱想한性으로써하니라此로써理는實在의意味를帶치아니함이不可하도다

然한데後世에降하여는朱子의理氣를起點으로하고論한故로理를形式的으로하여此를氣로부터區別코져하였도다然함으로吾人은理字의意味를主觀的으로求치안하였으니우리諸位는此에附한意味의如何를查定할必要가有하다하노라

理氣의二字는果然後來의哲學思想을惹起한바의一原因이되엇스나又其外에朱子哲學은後人의補成을待할者-有함을免치못하나니卽

一. 情의配列

二. 七情의善 (喜, 怒, 哀, 樂, 愛, 惡, 欲)이니此는如何튼지朱子哲學의弱點이라하겠도다그리함으로第二의弱點을補成한者는朱子의門人, 陳北溪-며第二의弱點을補한者는卽此를우리朝鮮의李退溪-라할지로다

朱子의後繼 晦菴은一世哲學의泰斗라學者-此를師치안임이無하다其門人에及한者-數百人에達한바其中有名한者를數하면蔡天定, 黃翰, 陳北溪, 補廣의徒-是로다

陳北溪

陳北溪의名은淳이오字는安卿이니龍溪人이라科擧의業을習하다가後에朱子에

게謁한대朱子-見하고鍾愛하다北溪도初에佛敎에入하였다가儒에歸하야其上達의次第를甚히嘆服하니라年六十五에그의著한바는唯道學體統四篇， 似道似學等이有하니라

學說

一. 心合理氣 朱子는心으로써氣에屬케하고理를具備하다하였스나然이나北溪는心으로써一物로看做치아니하고寧히天地間에在하야特別의靈的物이라하였도다故로曰『唯心無對』라하고又曰『大抵人得天地之理，爲性，得天地之氣，爲體』라하며乃繼하야曰『理與氣合，方成個心』이라하였으니此에至하야於是乎心の其物된觀念이至明하도다然한데『心の活動이有한바는氣가有한故라』하다

二. 情有善惡 情은朱子の言과如히性으로부터出來한者라하나니其說에曰『性中有仁，動出爲惻隱，性中有義，動出爲羞惡，性中有禮智，動出爲辭讓是非』라하다

是-情이性으로부터發한者和遮한者-有하다함이니此卽朱子の言코저하다가畢竟發치못한處를發明한바-로다

三. 太極의本體 太極의本體는圓하니各物에存在하되毫末도缺少한處-無하다』하니라此卽陳幾叟가謂한바『月落萬川，處處皆圓』이라함과恰如하도다太極은萬理에總腦되는바-라故로心도亦是太極이라不謂키難하다하니라

...(陳北溪篇完)...